

3일 동안의 파계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남기고...

8 경주 분황사(芬皇寺)

“저 많은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소녀부터 제도해 주십시오. 대사님, 부탁이요. 대사님...” 공주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던 스님은 황룡사를 떠나 정처 없이 걷는다. 그러던 스님이 문득 걸음을 멈춰 선 것은 걸망 안에 들어있는 미완성의 <발심수행장>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스님은 발길을 돌려 분황사로 향한다.

분황사로 가는 내내 ‘원효’의 두 글자가 맴돌았다. 신라의 땅이다. 짙은 구름 아래 서 있는 고도(古都)는 사라진 기억들과 사라지고 남은 흔적들 속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름만이 남아 있는 황룡사는 안타까운 대지 위에 들꽃을 기르고, 안타까운 순간을 함께 했던 또 하나의 절 분황사는 그 아쉽고 허망했던 지난날을 바라보고 있다.

황룡사 바로 옆에 있는 분황사는 신라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됐으며, 우리 불교 곳곳에 향수처럼 스며있는 이름, 원효(元曉:617~686) 스님이 머물렀던 절이다. 스님을 연모했던 태종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의 마음을 뿌리치고 황룡사를 떠났던 그날, 분황사에 들어 그날로부터 스님은 못다 쓴 <발심수행장>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무릇 모든 부처님들께서 적멸궁(寂滅宮)을 장엄하신 것은 많은 겁해 동안 탐욕을 버리고 고행하신이며, 중생들이 화택문(火宅門)에 윤회하는 것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지 않은 때문이다.’ <후략> 잊을 수 없는 ‘원효’의 문장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분황사에 머물던 원효 스님은 파계를 하고 만다. 스님만을 찾는 요석공주와의 인연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인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파계를 했으나 스님의 이름은 그때부터 우리들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한다. 파계한 스님은 승복을 입을 수 없었으나 불제자가 되겠다는 서원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다. 하여 또 다시 요석공주의 간청을 뿌리치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난다. 승복을 벗고 거사의 이름으로 백성들 곁으로 들어간 스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불법을 심기 시작한다. ‘원효’의 이름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무겁게 떠있던 구름 속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너진 석탑 하나와 들꽃처럼 살아 있는 법당 하나가 도랑에 내리는 비를 모두 맞고 있다. 원효 스님이 요석공주 곁에 머문 것은 단 3일이었다. 3일 동안의 파계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남겼다. 스님이 열반에 들고 스님과 요석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설총은 스님의 유골을 분황사에 모신다.

비가 그치고 돌담 너머 당간지주 위로 까치 두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보고 싶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아쉬운 지난날이 있어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면 분황사에 가볼 일이다. 무너진 석탑 앞에 서면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온 그 때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당간지주 위로 날아와 앉은 한 쌍의 까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의 안타까운 인연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저녁 범종소리가 꿈처럼 들려오고 분황사에 다시 저녁비가 내렸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분황사 석탑



분황사 보물관전



한 쌍의 까치가 날아와 앉은 분황사 당간지주 너머로 옛 황룡사터가 보인다.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정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흥왕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자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햇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햇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몰라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취급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사관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리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당, 기둥,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모양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문방사부스, 안경점, 신발매점, 전자제품매점, 미용점,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재고 위해 사업장 등 여러 사업장의 비방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종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구분	가	루	지	죽	염	가격
9년 구분	가	루	지	죽	염	125g 40,000원 / 230g 73,000원 / 125g 43,000원 / 230g 78,500원
2년 구분	보	금	민	속	죽	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시은품 (휴대용 알갱이 지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타는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천연연구비누 재료: 석자초, 홍단석화, 초용유, 풍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구비누 효과: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제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